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6회)

제9편

이만제단 시대 제6부

서1:9)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모님도 일본에 계시 때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천당가는 모습을 찾아 보려고 200명의 열심쟁이 기록교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속에서 몇 명만 천당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까맣게 씩어 뻥뻥한 장작개비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전도관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100% 천당에 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현장인가!

이후부터 전국 전도관에서는 생수 발라 피어서 천당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심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상승하게 되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생수 발라 노글노글하게 피어난 시신을 밌지 않는 사람이 잠으면 그 잠은 곳이 새까맣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친부모들이라도 전도관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면 똑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천당가는 데 지장을 주게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고 만져보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도관에 나온다 해도 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신앙이 엉망인 사람이 만저도 똑같이 새까맣게 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앙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교인들은 일부러 피하면서 시신 옆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였었다.

일반 상식으로 죽은 사람은 장작처럼 뻥뻥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꼽추나 또는 길거리에서 동사(凍死)하여 사지를 사방으로 벌리고 죽은 사람을 입관하기 위해서는 뼈를 부러뜨려서 입관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도관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생수를 바르고 하면 그 뼈가 노글노글해지면서 부드럽

게 퍼지니 뼈를 부러뜨리지 않아도 정상인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입관을 할 수가 있었다.

3) 이긴 피의 능력

위에 생수의 능력을 이긴 피의 능력이 라고 영모님은 설명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승리의 피라고 하였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승리의 피를 받아 영모님도 이긴자가 되었다고 했다. 이긴 피의 능력은 억만마귀를 이길 수 있는 피의 권세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등이다.

그런데 이 생수를 미친 사람에게 보이거나 먹이면 “피! 피!”하면서 질겁을 하였다. “이게 무슨 피냐?”라고 물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피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죽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작용을 하면서 며느리가 미쳐버렸다. 그때에 축복받은 생수를 먹이고 뿌려주니 피라고 하면서 질겁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 피라고 질겁을 하는 생수를 먹여서 정상으로 회복을 시켰다고 한다.

또 필자가 1958년에 서울 성동지관에 있을 때이다. 그때 하상갑 권사의 미친 조카를 제단에 데려 온 적이 있다. 그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말을 한 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교인들 10여명을 데리고 뺑 돌려 앉아 찬송을 부르니 제발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빌고 야단이다. 그러나 기회를 주지 않고 생수를 떠 먹이면서 생수 바른 솜을 가슴에다가 넣어주니까 질겁을 하면서 솜을 꺼내

팽개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솜을 다시 넣어주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였더니 솜에 피가 묻어서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였다.

또 생수를 강제로 먹이니 피라고 하면서 제발 그 피만은 먹이지 말아달라고 사정 사정을 한다. 그러면서 그 피가 내 속에 잔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발 부칠 곳이 없어 요년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어깨에다 생수를 뿌리니까 나 죽는다고 막 야단이다. 그래서 더 혼나지 않으려면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더니 울면서 일어서서 필자에게 큰 절을 하더니 그 여자를 까무러치게 하고는 나가 버렸다.

마귀들린 이 여자는 생수 보고 피라고 했다. 생수 바른 솜은 피 묻은 솜이라고 했다. 묵시록 11장에는 갈라나무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묵11:6)고 하였는데 이 마귀들린 여자는 분명히 생수를 피라고 하였다. 또 전도관 교인들은 이 생수를 5년 6년씩 마시지 않고 모셔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수는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맑은 물 그대로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수를 마시려고 보니까 빨간 피가 되어 있어 두려워서 마실 수가 없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는 예언이 그대로 응하는 내용들이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것은 이긴 피의 능력인데 이 이긴 피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흘린 보배로운 피라고 하면서 당시 영모님도 예수님의 피로 이긴자가 된 예수의 종이라고 하였다. 지금 생각을 하면 황당한 내용이 되지만 그 당시는 영모님의 그와 같은 설명이 사실로 곧이 들렸다. 영모님은 이처럼 피의 원리를 가려서 증거를 하시고 있는 것이다.*

(야):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호막 같은 것이 된다

美言可以市(미언가이시): 아름다운 말은 시장에서도 있다

尊行可以加人(존행가이가인): 존중 받을 행동은 좋은 사람에게도 있다

人之不善(也)(인지불선(야): 사람들이 선하지 않는데

何棄之有(하기지유): 어째서 가지고 있는 것(道)을 멀리 하는가

故立天子(교립천자): 고로 천자를 세우고

置三公(치삼공): 삼공을 두고
雖有挾(之)壁以先驅馬(수유공(지) 벽이선사마): 비록 먼저 사두마차 앞 세워 두 손으로 떠받들 귀한 구슬을 가진들

不如坐進此道(불여좌진차도): 도를 닦고 나아가는 것만 못하다

古之所以貴此道者何(고지소이귀차도자하): 예로부터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건 무엇인가

不曰以求得 有罪以免耶(與)(불왈이구득 유죄이면야(여): 잘못된 그 모든 죄의 면함을 구하여 얻을 수 있음을 일컫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故爲天下貴(고위천하귀): 그런고로 도는 천하의 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주호 기자

제9편

이만제단시대 제6부

— 피는 곧 생명이다.(창9:4)

1) 우주보다 더 큰 것

2) 천당가는 모습

3) 이긴 피의 능력

4) 피는 곧 생명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박장로님에게 오면 성령이 받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것이 생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영모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큰 생명을 손에 들려주어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숨을 죽이고 영모님만 뚫어져라 바라보고들 있다. “하나님,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주셨으니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행주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의 몸에 얹은즉 병이 나았다고 했다(행19:11).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행주수건은 바울의 몸에서 뿜어져 나가는 성령이 강하게 묻어나가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더니 같은 이치로 “박장로가 수도물에 축복을 하면 성수(聖水)가 된다. 이 성수를 오늘부터 축복해서 줄 터이니 다들 가져가라. 이 물을 몸이 아플 때 마시면 병이 낫고 또 건강한 사람도 마시면 죄가 씻겨져서 생명을 얻게 되고 얼굴에 바르면 윤기가 나며 환하게 피어나기 때문에 화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다들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오늘 처음인 고로 도수가 약하게 축복을 했다. 50% 정도 되게 한 것이다. 그래도 마귀는 처음이라 열덜덜에 기습을 당해서 전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충설명을 해주셨다. “앞으로 점점 더 쉼 것으로 축복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는 어떤 마귀세력도 다 멸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다들 황홀경에 빠져서 지금 천국이 다 이루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보니 이만제단 옆에 큰 천막을 치고 그 속에 드럼통 여러 개를 놓고 수도물을 받아서 영모님의 축복을 받아놓았다. 조금 전에 영모님이 말씀

하시던 성수(聖水)다. 다들 사이다병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병에다가 장세우 집사가 떠서 주는 성수를 정성껏 받고 있다. 반 흡 정도도 안 되게 주는 것이다. 사이다 병에 3분지 1 정도이다. 이만제단에서 시작된 이 일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성수는 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이 성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여 잘 사용하기도 못했다. 간절히 기도하고 얼굴에 바르거나 조금씩 마셨다. 그리고 병이 나면 이 성수로 고침을 받았다.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성수로 이루어진 이적과 기사가 수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성수(聖水)의 명칭이 생수(生水)로 바뀌었다.

2) 천당가는 모습

이후부터 이 성수(聖水)는 생수(生水)로 불려졌다. 한동안 이 생수의 위력이 전도관 사람들을 신명나게 하였는데 영모님은 단에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전도관 나온 지 6개월 이상된 자 중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이 생수를 그 죽은 시체에 발라 보라. 그러면 그 시체가 산 사람처럼 굳은 뼈마디가 풀리면서 노글노글해지고 얼굴의 주름살은 퍼지고 얼굴은 뽕얇게 어린이이 살갗같이 될 것이다. 또 그 몸에서는 향취가 진동할 것 이다. 전도관 나오다가 죽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천당가는 확실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교인들은 또 한 번 환호한 마음의 흥분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 떨어진 후부터 너무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전국의 전도관 사람들은 어디서 누가 죽는 식구가 없는가 하고 기다리기 시작할 정도가 되었다. 천당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은 당연

한 것인지도 모른다. 마침내 세상을 떠난 분이 한 분 생겼다. 서울 돈암동의 모 권사님이다. 소문을 들은 전도관 식구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작은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집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아수라장이다. 교인들을 해집고 들어가보니 교인들은 손뼉을 열심히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 어떤 권사님이 시신을 생수 바른 솜으로 열심히 닦고 있다. 그러더니 그 시신을 닦는 권사님이 갑자기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소리친다. 일제히 찬송을 부르면서 바라보니 생수 묻힌 솜으로 얼굴을 닦는 곳에는 피부가 하얗게 변한다. 온 얼굴을 다 닦으니 얼굴이 뽕얇게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굴에는 발그레하게 홍조를 띠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탄성을 토해냈다. 그 다음 손에, 팔에 생수를 바르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팔에서 핏줄이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뽕뽕하게 굳었던 팔이 산 사람처럼 노글노글 해지면서 두 손으로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때는 7월달로 매우 무더웠었다. 그런데 교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시신 주위를 맴돌더니 갑자기 향취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영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천당가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미친듯이 찬송을 불러대는 것이었다. 돌아가신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주름은 반듯하게 다 퍼져 있고 뽕얇게 된 얼굴에는 홍조가 퍼여 있다. 또 그 얼굴에는 미소를 띄고 있는 것이다. ‘아! 이것이 천당가는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저 신이 났다.

그런 중에서도 시체를 마귀가 다시 찾아와서 뺏을까 봐 열심히 찬송을 불렀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하나님의 전사와 마귀가 서로 뺏으려고 싸웠다(유다

古之所以貴此道者何

고지소이귀차도자하

예로부터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건 무엇인가

도덕경 62장 해설

도를 닦는 것은 왜,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사람들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면서도 단 몇 분만 있어도 살 수 없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 인생이 도(道) 속에 살 수밖에 없으면서도 도가 뭐가 뭔지 모르면서 산다

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도를 닦는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노자의 도를 제대로 닦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도를 하나의 스펙 정도로 알고 있다면 큰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왜 도를 닦는지 냉철하게 살펴볼 일이다.

첫째, 도를 닦는 가장 큰 목적은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되는 생로병사를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둘째, 인생이 태어날

적부터 운명적으로 걸머지고 나오는 죄의 무거운 멍에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다.

크게 이 두 가지가 도를 닦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 두 과제는 우리 인생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연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도를 닦는 행위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생

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자랑하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등등. 한 번뿐인 너무도 소중한 인생을 뒤돌린 목적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곳에 설정하고 허송세월하는 건 아닌지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태한 심정으로 삶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동서고금을 통해서 도를 닦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집착하였고, 그 도맥(道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 끝은 앞의 두 가지 숙제를 완전히 해소해야만 도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도의 완성을 이뤄야만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 세상 스펙을 쌓는 것이 그 다음 순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바람 앞의

춧불과도 같은 인생에게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가 귀하고 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도를 얻으면 인생의 참다운 목적과 의미, 그 모든 행복을 손아귀에 쥐고 살아간다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도를 통해야만, 비로소 그 모든 삶의 순서와 정도(正道)를 구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를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모르고 우주에 하나뿐인 생명을 조금씩 잃어간다. 그러면서 괴롭고 공통 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산다가 되니 이것이 천치 바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나의 삶이 목적과 방향도 없이 생사고해의 망망대해를 표류하다 끝나는 우매한 삶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본문을 읽고 살필 일이다.

道者萬物之奧(注也)(도자만물지오(주야)): 도란 만물의 근원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善人之實(也)(선인지보(야): 착한 사람에게는 보물이 되고

不善人之所保(也)(불선인지소보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